

妊婦의 攝生과 分娩에 關한 調查研究

滄州看護學校 車 貞 順

I. 緒 論

母子保健事業의 發達은 地域에 따라 또 文化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이 事業의 發展은 그 나라의 醫學과 公衆保健學의 發達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保健看護事業은 外國人 선교사 로선복(Miss Elmat. Rosen-berger)로서 최초로 1923년에 서울시 인사동에 있는 태화여자관 안에서 보건의업부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汎世界的인 潮流에 발맞추어 保健分野에 對한 認識을 새로이 하여 一大革新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의 強力한 保健施策은 無醫面 解消에 큰 作用을 하여 保健所 및 保健支所를 設置하고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을 展開하여, 都市民이나 農漁村民이나 庶民層에게 寬고루 惠澤을 주는 동시에 農漁村 庶民들의 經濟, 文化, 生産에 까지 큰 影響을 주고있다.

이와 같이 近間 母子保健事業은 急進度로 發展하여 流動 前進하는 모든 社會的 領域에서 妊産婦의 攝生과 分娩介助事業 動態의 研究視察은 가장 意義있고 母子保健事業을 評價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인 同時에 母子保健事業計劃樹立에 없어서는 아니될 基礎가 되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本研究는 忠淸北道 鎭川, 母子保健센터에 登錄된 妊産婦를 對象으로하여 그들의 妊娠攝生과 分娩介助의 關한 實態를 調查하여 母性健康을 위

하여 妊産婦 保護를 進歩시키는에 實在的으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調查對象 및 方法

1. 調查對象

忠淸北道 鎭川母子保健센터에 入院하여 分娩한 妊産婦와 登錄된 妊婦를 合하여 總 226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調查方法

本調査는 1970年1월부터 12월까지의 滿 1年 사이에 鎭川母子保健센터 産室에 있어서 入院分娩한 産母의 Chart에 記載된 記錄事項과 또 하나는 本母子保健센터에 登錄한 妊婦들에게 調査하였다.

調査員은 필자를 包含한 母子保健센터 職員 2名으로 構成되었고, 本調査에 앞서 調査內容, 記錄法, 面接技術等에 對한 詳細한 教育이 實施되었다.

調査員이 미리 마련한 質問紙에 따라서 直接 接見한 內容의 結果를 分析 觀察하였다.

III. 調查成績

<第 1 表>에 依하면 9월에 24名(10.6%)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과 11월에는 各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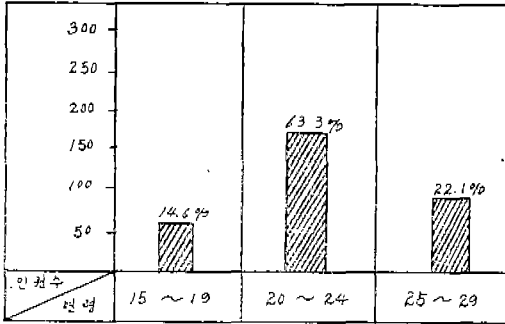
<第 1 表> 初産經産別月別入院者實態

區 分		月 別												計	%
		1	2	3	4	5	6	7	8	9	10	11	12		
初	産	11	6	11	7	6	16	5	9	9	9	13	7	109	48.2
經	産	6	11	9	8	10	6	7	14	15	10	10	11	117	51.8
	計	17	17	20	15	16	22	12	23	24	19	23	18	226	
	%	7.5	7.5	8.9	6.6	7.1	9.7	5.3	10.2	10.6	8.4	10.2	8.0		100.0

23名(10.2%)으로 次位이고, 6月에는 22名(9.7%), 3月에는 20名(8.9%)의 順位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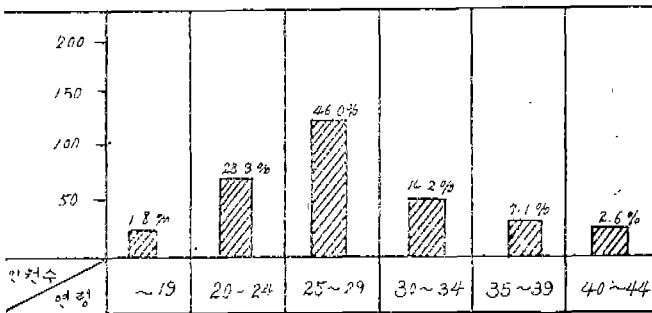
初産 經産別로는 初産 109名(48.2%), 經産 117名(51.8%)이다.

〈第1圖〉 結婚年齡別分布



結婚年齡別分布는 다음 〈第1圖〉에 보는 바와 같이 20~24歲群이 143名(63.3%)으로 首位를 차지 하였으며, 25~29歲群이 50名(22.1%) 15~19歲群이 33名(14.6%)으로 낮은 比率이었다.

〈第2圖〉 妊産婦年齡別入院者實態



〈第4表〉 妊 娠 回 數

區分	回數	1	2	3	4	5	6	7	8	9	10	計
人員數		109	26	27	25	17	11	7	1	3	—	226
%		48.2	11.4	12.0	11.2	7.5	4.9	3.1	0.4	1.3	—	100.0

〈第5表〉 妊 娠 中 受 診 回 數

區分	回數	1	2	3	4	5	6	7	8	9	10	計
人員數		107	62	17	12	12	7	5	1	2	1	226
%		47.4	27.4	7.5	5.3	5.3	3.1	2.2	0.4	1.0	0.4	100.0

〈第2圖〉에 依하면 25~29歲群이 104名(46.0%)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歲群이 64名(28.3%), 30~34歲群이 32名(14.2%), 35~39歲群이 16名(7.1%), 40~44歲群이 6名(2.6%), 19歲群以下는 4名(1.8%)으로 가장 낮은 下位를 보였다.

〈第2表〉 妊 産 婦 學 歷

學歷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計
人員數	20	131	44	31	—	226
%	8.9	57.9	19.5	13.7	—	100.0

〈第2表〉에 依하면 國民學校卒業이 131名(57.9%)으로 首位이며, 高等學校卒業이 31名(13.7%)으로 下位를 보였고, 教育을 필하지 않은 者가 20名(8.9%)이었다.

〈第3表〉 配 偶 者 的 職 業

職業	無職	農業	商業	工業	軍人	敎職	一般公務員	會社員	其他	計
人員數	17	59	55	15	16	14	44	6	—	226
%	7.5	26.1	24.3	6.6	7.1	6.2	19.5	2.7	—	100.0

〈第3表〉에 의하면 配偶者職業에 있어서 農業이 59名(26.1%)으로 首位이고 商業은 55名(24.3%)으로 次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一般公務員은 44名(19.5%), 會社員은 6名(2.7%)으로 가장 낮은 比率이었다. 無職은 17名(7.5%)이며 高齡者에 본다.

〈第4表〉에 依하여 妊娠回數를 보면, 1回妊娠의 경우가 109名(48.2%)으로 가장 많고, 3回妊娠이 27名(12.0%)으로 次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2回妊娠은 26名(11.4%), 4回妊娠은 25名(11.2%) 順位로 妊娠回數를 거듭함에 따라 妊娠回數가 漸次 減少 되어감을 알 수 있다.

<第5表>에 依하면 妊娠中 受診回數는 1회에 그친 妊婦가 107名(47.4%)으로 가장 많고, 妊娠月數가 많을수록 産前受診의 數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繼續受診한 者의 比率을 보면 5, 6, 7회의 受診群에서는 30% 以上の 繼續受診度를 보이고 있고, 8, 9, 10회의 妊娠末期群에서 急激한 減少를 보이고 있다.

<第6表> 妊娠과 睡眠

時間	5	6	7	8	9	10	計
人員數	—	6	80	120	20	—	226
%	—	2.7	35.4	53.1	8.8	—	100.0

<第6表>에 依하면 8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120名(53.1%)으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7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80名(35.4%)으로 次位이고, 6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6名(2.7%)으로 가장 낮은 下位이었다.

<第7表> 妊娠中肉體的運動

時間	1	2	3	4	5	計
人員數	—	30	60	110	26	226
%	—	13.3	26.5	48.7	11.5	100.0

<第7表>에 依하면 妊娠中 肉體的運動은 4時間이 110名(48.7%)으로 最高率을 보이며, 3時間이 60名(26.5%), 2時間이 30名(13.3%)의 順位로서 肉體的運動時間은 2時間의 짧은 時間을 要하는 경우도 있으나 4時間의 長時間을 要求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第8表> 妊娠中精神的動靜(讀書)

時間	1	2	특서를하지 않는다	計
人員數	140	26	60	226
%	61.9	11.5	26.6	100.0

<第8表>에 依하면 1時間의 讀書를 하는 妊婦는 140名(61.9%)으로 高率이며, 다음은 讀書를 하지 않는다는 妊婦는 60名(26.6%), 2時間의 讀書를 하는 妊婦는 26名(11.5%)으로 低率을 보

<第9表> 妊娠中 腹帶使用

妊娠月數	5	6	7	사용하지 않음	計
人員數	7	18	1	200	226
%	3.1	8.0	0.4	88.5	100.0

이고 있다.

<第9表>에 依하면 妊娠中 腹帶使用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 腹帶를 使用하지 않음이 200名(88.5%)으로서 最高率을 보이며 6個月에 腹帶使用이 18名(8.0%), 5個月에 腹帶使用이 7名(3.1%)의 順位로서, 7個月에 가서 腹帶使用이 1名(0.4%)으로 必要로하는 경우도 있으나 妊娠中 전혀 使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第10表> 妊婦의 營養狀態

營養狀態	胎兒健康을 위해 골고루 취한다	입에 맞는 飲食만 취한다	妊娠前과 마찬가지로	計
人員數	186	15	25	226
%	82.3	6.6	11.1	100.0

<第10表>에 依하면 妊婦 226名中 胎兒健康을 위해 골고루 취한다는 妊婦가 186名(82.3%)으로서 가장 많고, 妊娠前과 마찬가지로는 妊婦가 25名(11.1%), 입에 맞는 飲食만 취한다는 妊婦는 15名(6.6%)으로 가장 적었다.

<第11表> 妊婦自身の 不安感

응답문항	마음이 不安하며 憂鬱해진다는	不 恐怖感이 든다	잘모른다	計
人員數	50	30	146	226
%	22.1	13.3	64.6	100.0

<第11表>에 依하면 妊婦自身の 不安感에는 잘모른다가 146名(64.6%)으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마음이 不安하며 憂鬱해진다는 妊婦가 50名(22.1%)으로서 次位이고, 恐怖感이 든다는 30名(13.3%)으로서 下位를 보였다.

<年12表> 以前の 分娩場所

分娩場所	病院	家庭	未詳	計
人員數	20	90	7	117
%	17.2	77.6	5.2	100.0

<第12表>에 依하면 本鎮川母子健康會 分娩中者 以前の 分娩場所를 보면 家庭分娩이 90名(77.6%)으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病院分娩을 한 妊婦는 20名(17.2%)으로 次位이었다.

<第13表>에 依하면 分娩者 117名에 對한 以前の 分娩介助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 無資格者(其

〈第13表〉 以前の分娩介助

介助者	醫師	助産員	其他	計
人員數	21	31	65	117
%	18.1	26.7	55.2	100.0

他)에게서 65名(55.2%)으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다음은 助産員에게서 31名(26.7%)으로서 次位이며, 醫師에게서 21名(18.1%)으로서 下位를 보였다.

〈第14表〉 出産間隔

區分	年數					計
	1	2	3	4	5	
人員數	2	28	80	6	1	117
%	1.7	24.2	68.9	4.3	0.9	100.0

〈第14表〉에 依하면 3年の 出産間隔이 80名(68.9%)으로서 最多이고, 2年の 出産間隔이 28名(24.2%), 4年の 出産間隔이 6名(4.3%)의 順位이고, 5年の 出産間隔이 1名(0.9%)으로서 最少였다.

〈第15表〉 以前の出産

區分	種類	出産			計
		正期産	早産	流産	
人員數		100	6	11	117
%		86.2	5.2	8.6	100.0

〈第15表〉에 依하면 經産婦 117名中 正期産이 100名(86.2%)으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早産은 6名(5.2%)으로서 下位이었다.

〈第16表-1〉 胎位

區分	胎位	胎位				計
		頭位	臀位	橫位	其他	
人員數		224	4	—	—	226
%		98.2	1.8	—	—	100.0

〈第18表〉 初産 經産別 新生兒의 體重動態

性別	體 重	體重動態												計
		1500~1999		2000~2499		2500~2999		3000~3499		3500~3999		4000이상		
		合	우	合	우	合	우	合	우	合	우	合	우	
初産	産	—	—	—	—	10	6	32	20	26	13	2	—	109
經産	産	—	—	—	—	1	3	21	36	25	15	11	5	117
計		—	—	—	—	11	9	53	56	51	28	13	5	226
%		—	—	—	—	4.9	3.9	23.4	24.8	22.6	12.4	5.8	2.2	100.0

〈第18表〉에 依하면 新生兒의 體重 3,000~3,499g群이 男兒 53名(23.4%), 女兒 56名(24.1%)으로 首位이고, 3,500~3,999g群이 男兒 58

〈第16表-1〉에 依하면 胎位는 表示된 바와 같이 頭位, 臀位로 分類하였다.

頭位는 222名(98.2%)이고 臀位는 4名(1.8%)이었다.

〈第16表-2〉 初産과經産別로본胎位및胎向

胎 向	區 分	L.O.A	R.O.A	計
		數	數	
初 産	區 分	55	54	109
	%	22.3	26.4	48.7
經 産	區 分	72	45	117
	%	33.9	17.4	51.3
計	區 分	127	99	226
	%	56.2	43.8	100.0

〈第16表-2〉에 依하면 後頭位分娩의 例를 初産婦와 經産婦로 區別하고 그 胎向을 調査한 結果이다. 即 初産婦는 109名(48.7%)이며, 經産婦는 117名(51.3%)이었다.

〈第17表〉 新生兒의性別로본胎位및胎向

性 別	胎 向	L.O.A		數	R.O.A		數	計
		合	우		合	우		
		初産	區分	29	26	55	24	30
	%	10.3	12.0	22.3	11.5	14.9	26.4	48.7
經産	區分	42	30	72	30	15	45	117
	%	21.1	12.8	33.9	12.4	5.0	17.4	51.3
計	區分	71	56	127	54	45	99	226
	%	31.4	24.8	56.2	23.9	19.9	43.8	100.0

〈第17表〉에 依하면 正常分娩한 226名의 新生兒中 男兒는 125名(55.3%)이며, 女兒는 101名(44.7%)이다. 初産婦는 男兒가 54名(21.8%), 女兒는 56名(26.9%)이며, 經産婦는 男兒가 71名(33.5%), 女兒는 45名(17.8%)이었다.

名(22.6%), 女兒 28名(12.4%), 2,500~2,999g群이 男兒 11名(4.9%), 女兒 9名(3.9%), 4,000g以上群이 男兒 13名(5.8%), 女兒 5名(2.2%)의

順位였다.

IV. 總括 및 考察

1. 初産, 經産別, 月別, 入院實態에 對하여

出産은 여름 妊娠에 봄 出産이 좋다.

그 理由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보다 따뜻한 봄이 좋고, 또 봄에 낳은 아기는 離乳期가 가을부터 始作되어 飲食物이 잘 상하지 않는 季節에 母乳를 人工營養으로 交替하게 되는것이다.

出生後 많이 生存하는 달은 4, 5, 6월이므로⁽¹⁾ 대체로 4, 5月生이 제일 많이 生存하고, 11, 12, 2月生이 제일 적게 낳는다. 本調査에서 産母의 月別 入院實態를 보면 9월에는 24名(10.6%)으로 首位이고, 8월과 11월에는 各各 23名(10.2%), 6월에는 22名(9.7%), 3월에는 20名(8.9%)의 順位이며, 1, 2월에는 分娩率이 下位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初産, 經産別로는 初産은 6월에 16名(6.6%)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經産은 9월에 15名(6.5%)으로 가장 많았다.

2. 結婚年齡別 分布에 對하여

女子 16歲는 妊娠할 수 있는 條件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肉體의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未成年이고 主婦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教育을 받을 時間的 餘裕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婦人으로서의 橫的關係를 維持 못하고, 依賴心이 强하고 忍耐力이 弱하다. 따라서 妊娠, 分娩의 負擔을 이겨내지 못하여 出産障礙가 많다. 그러므로 適當한 結婚年齡은 23歲前後가 適當하다.

美國의 平均 初婚年齡 (1955)은 女子 20.6歲이고, 우리나라는 女子 21.2歲로 되어있다. 本調査에 結婚年齡別 分布는 20~24歲群이 143名(63.3%)으로 首位이고, 25~29歲群이 50名(22.1%)으로 次位이며, 15歲~19歲群은 33名(14.6%)으로서 年少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妊娠婦年齡別 入院者 實態

妊娠婦를 年齡別로 分類하여보면 25~29歲群이 104名(46.0%)으로서 가장 많았고, 20~24歲

群이 64名(28.3%)으로서 次位이며, 30~34歲群이 32名(14.2%), 35~39歲群이 16名(7.1%)이었다. 가장 年齡이 많은 40~44歲群과 年齡이 작은 19歲群 以下는 各各 6名(2.6%)과 4名(1.8%)이었다.

4. 妊娠婦 學歷에 對하여

妊娠婦 226名의 學歷을 보면 國民學校 卒業者가 131名(57.9%)으로 가장 많고, 中學校 卒業者는 44名(19.5%), 高等學校 卒業者는 31名(13.7%)이었다. 教育을 畢하지 않는 者가 20名(8.9%)이었다.

5. 配偶者의 職業別에 對하여

農業이 59名(26.1%)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商業은 55名(24.3%)으로 次位이며, 一般公務員은 44名(19.5%), 軍人은 16名(7.1%), 工業은 15名(6.6%), 敎職은 14名(6.2%), 會社員은 6名(2.7%)으로 가장 낮은 下位였다.

6. 妊娠回數에 對하여

1回妊娠의 경우가 109名(48.2%)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3回妊娠이 27名(12.0%)으로 次位이며, 2回妊娠이 26名(11.4%), 妊娠回數에 따라서 低下되는 現狀이나, 9回妊娠이 3名(1.3%)으로 나타난것은 아직도 高年齡群에는 家族計劃이 實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本調査를 通하여 알 수 있다. 即, 母性健康을 위하여 또는 經濟發展을 위하여 家族計劃의 啓蒙이 再三 要望된다.

7. 妊娠中 受診回數에 對하여

妊娠中에는 定期 健康診斷을 받아서, 危險한 症狀을 未然에 豫防, 또는 順産을 위한 豫備知識, 妊娠中の 올바른 攝生, 育兒등에 關한 知識을 얻어 母兒 兩者의 安全을 기하도록 한다.

本調査에서, 1회에 그친 受診者는 107名(47.4%)으로 가장 높은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의 受診한 妊娠婦는 62名(27.4%), 3회의 受診한 妊娠婦가 17名(7.5%)의 順位이며, 妊娠月數가 많아질수록 妊娠婦에게 受診來訪이 낮아지는 것은 安全分娩을 위하여 對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8. 妊娠과 睡眠에 對하여

妊娠中에는 身體의 모든 器官이 過重한 負擔

(1) 李鶴松: 家族計劃, 東明社, 서울, 1962, 34

을 받으므로 항상 疲勞를 느끼게 된다. 疲勞는 充分한 睡眠에 依해서 回復 또는 豫防할 수 있으며, 妊婦는 最大限의 安靜과 睡眠을 取하도록 한다.

妊婦와 睡眠을 보면 8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120名(53.1%)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6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6名(2.7%)으로 下位이었다. 8時間의 睡眠이 가장 높은 率을 보이고 있음은 이 妊娠期의 睡眠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고 妊娠自身の 産前保健을 위하여 努力하는 것이 보인다.

9. 妊娠中 肉體的運動에 對하여

妊娠中에도 適當한 運動이 必要하다, 妊娠中 運動이 不足하면 食慾이 減退되며, 便秘, 不眠 등을 招來하게 된다. 그러나 下腹部에 強한 힘이 가는 일, 허리를 꾸부리고 하는 일 등은 妊娠初期와 末期에는 禁해야 한다. 妊娠中 肉體的 運動을 보면 4時間이 110名(48.7%)으로 首位이고, 3中間이 60名(26.5%), 5時間이 26名(11.5%)으로 長中間運動으로 나타난 것은 바쁜 農村實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妊娠中 精神的 動靜(讀書)에 對하여

平素에 讀書을 좋아하는 婦人은 妊娠中에도 適當히 繼續함이 좋으나 妊娠末期에는 될 수 있는 限精神的 過勞를 피하여야 한다. 特히 喜怒哀樂의 感情을 들우는 책을 읽는 것은 禁해야 한다.

妊娠中 讀書에 對하여 보면 1中間의 讀書을 하는 妊婦는 140名(61.9%)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讀書을 하지 않는 妊婦는 60名(26.6%)으로 下位를 보이고 있다. 이 結果로 나타난 것은 農村의 바쁜 生活環境과 또 하나는 教育을 畢하지 못한 妊婦의 數가 많았다는 反面에 教育程度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1. 妊娠中 腹帶使用에 對하여

妊娠後半期에 腹帶를 하면 腹部의 保溫, 子宮과 胎兒의 位置를 保護하고, 步行과 舉動하기에 便利한 이로운 점이 있으며, 初妊婦보다 經産婦

特히 頻産婦에게 使用된다. 妊娠中 腹帶使用은 使用하지 않음이 200名(88.5%)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6個月에서 腹帶使用이 18名(8.0%), 5個月에서 腹帶使用이 7名(3.1%)의 順位이다, 本調査에서의 使用하지 않음이 200名(88.5%)으로 首位를 차지한 것은 妊婦의 癩生法을 理解하지 못하는 原因으로 본다.

12. 妊婦에 營養狀態에 對하여

애기의 發育을 增進시키고 母體의 健康을 保存하기 爲해 妊産婦로 하여금 均衡食을 때때라 攝取하는 것은 大端히 重要한 일이다. 營養所要量은 妊婦는 基礎代謝量이 增加하므로 非妊中에 比해서 妊娠前半期에는 約 15%, 妊娠後半期에는 約 30%, 授乳期에는 約 45%, 增加의 熱量을 必要로 한다고⁽³⁾ 본다. 營養素의 不足은 母體의 抵抗力을 弱하게 하고, 疲勞하기 쉽고, 神經過敏·貧血·胎兒發育不良·虛弱兒·流早産·分娩經過의 延長, 産機에 있어서는 母體回腹의 遲延, 浮汁의 分泌不足을 일으키기 쉽다. 妊婦의 營養狀態를 보면 妊婦 226名中 胎兒健康을 위해 取한다는 妊婦가 186名(82.3%)으로 首位이고, 妊娠前과 마찬가지로 妊婦가 25(11.1%)名으로서 次位이다.

13. 妊婦自身の 不安感에 對하여

妊娠中の 不安과 憂鬱한 精神狀態는 血液循環과 消化作用을 방해하여, 胎兒에게 滋養分의 供給을 抑制하며, 또한 妊娠中の 恐怖는 심한 精神感動에 依해 妊娠中絶, 難産, 分娩遲延 등을 招來하게 된다. 그러므로 公연히 分娩의 苦痛, 困難等에 關하여 心慮하는 妊婦가 있다면 適當히 慰安시킬 것이며, 또 이러한 妊婦에게 難産, 新産兒畸形等에 關하여는 일체 言及치 말것이다. 그리고 家庭의 不和, 不幸等은 妊婦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本調査에 146(64.6%)名으로서 應答에 잘 모른다가 首位이고, 마음이 不安하며 憂鬱해 진다가 50名에(22.1%), 恐怖感이 든다가 30名(13.3%)이었다. 總對象者中 마음이 不安함과 恐怖感

(2) 金錫煥: 助産學, 一潮閣, 서울, 1960, p. 51

(3) 糸井一良·高野貴伊: 産婦人科看護學, 東京, 醫學書院, 1965, p. 385

(4) 金玉實: 産前管理, 妊婦의 受診과 分娩에 關한 實態調査, 대한간호, 제5년·제4호, p. 23

이 드는 妊婦가 各各 50名(22.1%), 30名(13.3%)의 結果를 볼때 妊娠初期부터 定期診察과 좋은 攝生을 하면 하등의 危險을 받지않고 順産할 수 있다는 것을 理解하여 安心시켜주는 것이 精神健康을 爲하여 重要的인 일이라 하겠다.

14. 以前の分娩場所에 對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수의 産母들이 不適當한 環境과 家族에 依한 分娩으로 因한 여러가지의 苦痛을 받고 있다.

美國의 경우 全妊婦의 96%가 病院分娩을 하고 있고, 日本의 경우 全妊婦의 96%가 醫師(20%)나 助産員(76%)等 有資格者에 依해 分娩하고 있는 實情인데⁽⁴⁾, 이에 比하여 本調査에서의 家庭分娩이 90名(77.6%)으로서 가장 많았고, 病院分娩은 不過 20名(17.2%)으로서 낮은 率을 보인것은 農村住民의 教育程度가 낮아서 理解가 잘 안가는 것으로 보아 積極的으로 産前指導에 올바른 啓蒙教育이 必要함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15. 以前の分娩介助에 對하여

특히 農村의 産母들은 아무런 衛生觀念이 없는 家族이나 其他 周圍사람들에 依해서 分娩介助를 받으므로 産褥熱, 破傷風, 分娩共に 出血 및 産後出血等 여러가지의 危險을 招來하게 된다. 本調査에서 보면 醫師, 助産員도 아닌 無資格者에게서 65名(55.2%)으로서 過半數를 차지하고, 助産員은 31名(26.7%) 醫師에게서는 21名(18.1%)이었다, 妊産婦 117名中 52名(44.8%)이 醫師와 助産員의 分娩介助를 받았는데 比해 無資格者의 依한 分娩介助는 65名(55.2%)으로 優勢한 것은 아직도 分娩에 對해 必要的인 理解가 缺乏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因하여 母性死亡率 및 娜兒死亡率等 重要的인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窮極의 解決策으로 醫師 및 助産員들의 專門의 介助를 農村의 産母들로 하여금 받게 하여 危險을 豫防할 수 있고 順産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分娩介助事業에 올바른 啓蒙教育이 急先務라 하겠다.

16. 出産間隔에 對하여

結婚하면 1個月以內에 15%가 妊娠하고 新婚 1年以內에 3割이 出産한다고 보며, 適當한 時

에 있어서는 母兒 兩者의 健康維持를 爲해 各兄弟間의 年齡差異는 3年程度가 가장 適當하다고 본다. 妊娠는 胎兒의 發育, 授乳準備等に 過重한 心身의 負擔을 克服하느라고 極度로 疲勞하게 된다.

解産後도 繼續해서 授乳를 하기 때문에 産母할 心身의 健康狀態는 完全히 回復되지 못한다. 만일 産後 1年以內에 妊娠을 하게되면 母體의 心身に 過重한 負擔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産後 1年은 授乳期間이므로, 授乳中에 妊娠하면 母乳不足으로 乳兒의 營養不良, 胃腸障礙를 招來하기 쉽고, 胎兒發育도 完全히 못하다. 年年生은 3年터울로 난 乳兒에 比하여 死亡率이 3倍나 높다한다. 그러나 3年 以上の 間隔을 두는것은 育兒에 支障이 있어 좋지 못하다.

本調査에서 3年の 出産間隔이 80名(68.9%)으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2年の 出産間隔이 28名(24.2%), 4年の 出産間隔이 6名(4.3%)의 順位이며; 1年の 出産間隔이 2名(1.7%), 5年の 出産間隔이 1名(0.9%)으로 各各 낮은 比率을 보였다.

17. 以前出産에 對하여

妊娠期間中, 週期的 規則的인 診察을 통하여 만약 異常이 發見된 境遇에는 即中로 適當한 治療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産前診察은 보다 좋은 産前攝生이 되며 食餌, 運動과 衣服等に 對해서도 妊娠에 알맞게 正常的으로 維持시키는 것이 좋다.

流産이 가장 많은 特期는 妊娠의 첫 3個月間이며 그중에서도 妊娠第 3個月에 가장 많고, 그後는 全 流産의 約 40~50%나 된다. 本調査에서 經産者 117名中 正期産이 100名(86.2%)으로서 가장 많았고, 流産이 11名(8.6%)으로서 次位이다. 以上과 같은 結果를 보면 流産, 早産의 疑心이 있을때는 早期診斷을 받아 早期治療가 要望된다.

18. 初産과 經産別로 본 胎位 및 胎向

가) 胎位: 本母子保健센타에서는 正常分娩以外에는 取扱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本調査에서의 正常分娩한 總 226名中 頭位가 222名(98.2%)이며, 臀位는 4名(1.8%)으로 나타났다.

나) 初産과 經産別로 본 胎位 및 胎向: 後頭位 分娩의 例를 初産婦와 經産婦로 區別하고 胎位와 胎向을 調査한 結果이다. 即 初産婦는 109名(48.7%)이며, 經産婦는 117名(51.3%)이었다. 그리고 L. O. A. (Left Occiput Anterior)가 初産婦에서 55名(22.3%), 經産婦에서는 72名(33.9%)으로서 많았다. R. O. A. (Right Occiput Anterior)가 初産婦에서 54名(26.4%)으로 많았고, 經産婦에서는 45名(17.4%)이었다.

19. 胎兒의 性別로 본 胎位 및 胎向

胎向과 性別關係는 本調査에서 226名의 新生兒中 男兒 125名(55.3%), 女兒는 101名(44.7%)이며, 初産婦는 男兒가 54名(21.8%), 女兒는 56名(26.9%)이며, 經産婦는 男兒가 71名(33.5%), 女兒는 45名(17.8%)이었다. 即 男兒出生率이 女兒보다 25名(11.1%) 높다. 初産과 經産別로 본 性別은 初産婦에 비해 經産婦가 男兒出生率이 많았다.

20. 初産, 經産別 新生兒의 體重動態

平均體重은 男兒가 3,060g, 女兒가 2,950g이다. 本調査에서 新生兒의 體重 3,000~3,499g群이 男兒 53名(23.4%), 女兒 56名(2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00~3,999g群이 男兒 51名(22.6%), 女兒 28名(12.4%)이며, 4,000g以上群이 男兒 13名(5.8%), 女兒 5名(2.2%)으로서 가장 적었다.

V. 結 論

1970年 1月부터 1970年 12月까지 滿 1年 사이에 忠淸北道 鎮川母子保健센터에서 入院 分娩한 妊産婦 總 226名에 對한 諸般事項에 關하여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初産, 經産別 月別 入院實態에 있어서 産母의 月別入院實態를 보면 9월에 24名(10.6%)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8月과 11月에는 各各 23名(10.2%)으로 次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6月에는 22名(9.7%), 3月에는 20名(8.9%)의 順位이며, 8, 9, 10, 11월에 비해 4. 5月에는 下位의 現狀을 보이고 있다. 8, 9, 10, 11월에 分娩數가 많은 것을 볼때 1, 2, 12월에 各各 妊娠率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結婚年令別分布에 있어서 20~24歲群이 143名(63.3%)으로 最多數를 차지하고, 15~19歲의 年少群이 33名(14.6%)으로 下位였다. 女性의 結婚年令이 25~29歲群 50名(22.1%)보다 20~24歲群이 143名(63.3%)에서 더 높은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3. 妊産婦年令別 入院者實態를 分類하여 보면 25~29歲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24歲群이 64名(28.3%)이며, 19歲以下群이 4名(1.8%)으로 가장 낮은 率을 보였다.

4. 妊産婦 總對象者中 妊産婦學歷에 있어서는 國民學校 卒業者가 131名(57.9%)으로 首位이며, 中學卒業者는 44名(19.5%)으로 次位를 차지하고 高等學校 卒業者는 31名(13.7%)의 順位이다. 教育程度別比較는 教育未畢者가 20名(8.9%)의 結果를 나타낸 것은 農村生活의 貧困한 理由로 본다.

5. 配偶者의 職業別을 보면 農業이 59名(26.1%)으로 가장 많은 首位를 차지하고, 商業은 次位로 55名(24.3%)이며, 一般公務員은 44名(19.5%), 軍人은 16名(7.1%), 工業은 15名(6.6%), 敎職은 14名(6.2%)의 順位이며, 會社員은 6名(2.7%)의 가장 낮은 下位였다. 農村을 對象으로 한 關係로 農業이 首位이며 無職은 高令者로 17名(7.5%)이었다.

6. 妊娠回數를 보면 1回妊娠이 109名(48.2%)으로 가장 많고, 4回妊娠이 25名(11.2%)으로 妊娠回數의 增加에 따라 低下되는 形狀이나, 9回妊娠이 3名(1.3%)으로 나타난 것은 農村의 實情으로 보아 家族計劃이 高齡層에는 實施되지 않았다는 것을 本調査를 통해서 알 수 있다.

7. 妊娠中 受診回數에 있어서는 1회에 그친, 受診者는 107名(47.4%)으로 가장 높은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妊娠月數가 많아질수록 妊娠來訪이 낮은 數를 나타내고 있다. <第5表>에 있어 綜合하여 보면 本母子保健센터의 産前診察 受診者中 半數以上の 妊娠가 分娩時期가 臨迫하여 受診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現狀은 異常의 早期發見, 産前誕生, 完全한 分娩準備, 올바른 育兒에 對한 知識을 얻을 수 있는 相

談機會가 充分치 못하므로 妊娠中 受診을 積極獎勵하여야 할 것이다.

8. 妊娠과 睡眠에 있어서는 8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120名(53.1%)으로 가장 많고, 7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80名(35.4%), 9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20名(8.8%)이며, 6時間의 睡眠을 取하는 妊婦는 6名(2.7%)으로 가장 적었다.

9. 妊娠中 肉體的 運動에 있어서는 4時間이 110名(48.7%)으로서 가장 많았고, 3時間이 60名(26.5%), 2時間이 30名(13.3%)이며, 5時間이 26名(11.5%)으로 가장 적었다. 4時間의 肉體的 運動이 110名(48.7%)으로 過半數를 차지한 것은 都會地에 비해 農村의 바쁜 實情임을 알려 준다.

10. 妊娠中 精神的 動靜(讀書)에 있어서는 1時間의 讀書을 하는 妊婦는 140名(61.9%)으로 首位이며, 다음은 讀書을 하지 않는다는 妊婦는 60名(26.6%)으로 次位이고, 2時間의 讀書을 하는 妊婦는 26名(11.5%)으로 下位이었다.

11. 妊娠中 腹帶使用에 있어서는 腹帶를 使用하지 않음이 200名(88.5%)으로 首位이며, 다음은 6個月에서 腹帶使用이 18名(8.0%)으로 次位이고, 5個月에서 腹帶使用이 7名(3.1%), 7個月에서 腹帶使用이 1名(0.4%)으로 下位 이었다.

12. 妊婦의 營養狀態에 있어서는 胎兒健康을 爲해 골고루 取한다는 妊婦가 186名(82.3%)으로 가장 많았고, 妊娠前과 마찬가지로 妊婦가 25名(11.1%)으로서 次位이며, 口に 맞는 飲食만 取한다는 妊婦는 15名(6.6%)으로 下位를 보이고 있다.

13. 妊娠自身の 不安感에 있어서는 잘모른다에 146名(64.6%)으로 가장 많았고, 마음이 不安하며 憂鬱해진다는 妊婦가 50名(22.1%), 恐怖感이 든다에 30名(13.3%)으로서 下位이었다.

14. 以前의 分娩場所에 있어서는 家庭分娩이 90名(77.6%)으로서 高率이며, 病院分娩이 20名(17.2%)으로 低率이었다.

15. 以前의 分娩介助에 있어서는 分娩者 177名中 無資格者에게서 介助한 分娩者가 65名(55.2%)으로서 最高率을 보이며, 助産員에게서 介助한 分娩者가 31名(26.7%), 醫師에게서 介助한 分娩者가 21名(18.1%)의 順位이다.

16. 出産間隔에 있어서는 3年の 出産間隔이 80名(68.9%)으로서 最多이며, 2年の 出産間隔으로 28名(24.2%)으로서 次位이었다.

17. 以前出産에 있어서는 經産者 總 117名中 正期産이 100名(86.2%)으로서 大部分을 차지하고, 流産이 11名(8.6%), 早産이 6名(5.2%)이었다.

18. 胎位: 頭位가 222名(98.2%)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臀位는 4名(1.8%)으로 낮은 低率이었다.

胎向: 初産婦는 109名(48.7%), 經産婦는 117名(51.3%)으로 比例하였다.

19. 新生兒의 性別로 본 胎位 및 胎向에 있어서는 總 226名의 新生兒中 男兒가 125名(55.3%), 女兒가 101名(44.7%)이며, 初産과 經産別로 본 性別은 初産婦에 비해 經産婦가 男兒의 出生率을 많이 보였다. 即 男兒出生率이 女性보다 25名(11.1%)으로 높다.

20. 新生兒의 體重動態에 있어서는 體重 3,000~3,499g群이 男兒 53名(23.4%), 女兒 56名(24.8%)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次位로는 體重 3,500~3,999g群이 男兒 51名(22.6%), 女兒 28名(12.4%)이었다. 4,000g 以上群(巨六兒)이 男兒 13名(5.8%), 女兒 5名(2.2%)이다. 이리 因하여 分娩時에 危險을 招來할 수 있으므로 安全하게 順産할 수 있도록 母兒健康을 爲하여 産前指導가 時急한 問題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錫煥: 助産學, 서울, 一潮閣 1960, p. 51.
2. 崔貞子·朴萬龍: 産科 및 婦人科看護學, 서울, 壽文社, 1970.
3. 李金田: 保健看護學, 大韓看護協會 1967.
4. 金玉寶: 保健看護學, 서울, 壽文社, 1970.
5. 李鶴松·李熙永: 家族計劃, 서울, 東明社, 1962, p. 34.
6. 우육자: 胎아의 胎位, 胎向에 關한 統計的 觀察, 大韓看護, 제5권, 제5호.
7. 金玉寶: 産前管理妊婦의 受診과 分娩에 關한 統計觀察, 大韓看護, 제5권, 제4호, p. 73.
8. Greenhill, J. P.: obstetrics. 12th, d., W. B. Saunders Co, 1961.
9. 伊藤曉子外 數名: 母性看護學, 東京, 醫學書院, 1969.
10. 系井一良·高野貴伊: 産婦人科看護學, 東京, 醫學書院 1965, p. 385.